

## 클레어 맥카델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 Claire McCardell's Influences on the Modern Fashion

이 승 희 · 한 지 은 · 정 성 혜<sup>+</sup>

Lee, Seung Hee · Han, Jee Eun · Jung, Sung Hye<sup>+</sup>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과 교수<sup>+</sup>

Master, Dept. of Home Education, Inha University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is study is to know the influences on the modern fashion by Claire McCardell who was a major role on setting the ready-to-wear industry in 1930-1960 in America. To do the theoretical study, it progressed its historical background for Europe and America, and then studied the work for Claire McCardell's lifetime, her fashion philosophy, and her fashion features.

Through the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American fashion industry took a rapid growth. Claire McCardell raised sportswear to be the best item between the women's wear and set the foundation for the modern fashion in the American fashion history.

It can be summarized by next three part of the Claire McCardell's influences on the modern fashion.

First, She changed the concept of functionalism of sportswear to be the day-wear's.

Second, She played a very important part in promoting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modern fashion by developing one piece items. It mixed and matched the items, and it was suitable for the modern fashion industrial system which formed a line collected by diverse items.

Third, she led the western fashion trend by presenting a new dress model proper for the American mental and lifestyle which was differentiated from the European's.

Claire McCardell did her best effort to fill women's inner expression with their eager and their necessity in modern life style rather than creating the fashion for a fashion.

Key Words : Claire McCardell, Modern Fashion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의의

패션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사회현상을 읽는 중요한 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디자이너는 현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성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감각적인 자질과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현대패션산업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인터넷 보급과 함께 패션트렌드가 급속히 전파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급속한 문화급변 속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호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차별화된 패션철학을 의상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대에 영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상 속에 열정을 담아내는 디자이너들이 시대를 초월한 생명력을 지니며 시대를 뒤바꾸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해외 디자이너들 가운데 몇몇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트렌드를 반영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트렌드와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패션철학을 의복에 표현함으로써 과거에 전개했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패션에 뒤지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볼 수 있다.<sup>1)</sup> 그 대표적인 예로 샤넬(Gabrielle Chanel)을 들 수 있으며, 동 시대에 미국의 기성복사를 다시 쓰게 한 클레어 맥카텔(Claire McCardell) 역시 그에 속한다.

특히, 클레어 맥카텔은 예술성만을 표방하는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의 고정관념을 깨고 의복의 단품아이템들을 세련되게 매치(match)시킴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확고한 패션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샤넬의 의상을 보다 더 단순하게 다양화하여 패션산업에 있어 의복의 단품을 매치시킴으로써 20세기 초까지 유럽문화가 주도해왔던 미국패션에 미국만의 시대정신을 고집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 철학을 고수하는 디자이너였다. 시대와 반하여 유럽에 종속적이었던 미국 패션에서 미국인의 정서와 생활을 디자인에 녹여내어 미국인에게 호응을 얻고, 기능주의적 의복의 재료와 구성 라인(line)을 통해 세계인의 트렌드를 바꾸어 놓은 미국의 영웅적 디자이너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널리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디자이너이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 또한 유럽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왔고 미국 디자이너의 작품 연구나 그들의 패션 미학과 철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복식사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국 패션의 역사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 여성스포츠웨어의 창시자인 클레어 맥카텔의 작품 특성 및 패션철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우리의 고유한 패션 이

1) 김미성, 배수정 (2003).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철학을 통해 나타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服飾. 52(6). p.162.

미지와 철학을 세계와 시대를 초월한 패션트렌드로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클레어 맥카텔(Claire McCardell, 1905-1950)의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여 클레어 맥카텔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문헌연구에 의한 사적고찰로서 이루어 졌으며, 국내 보급되어 있는 관련 전문서적, 연구문헌, 논문자료, 사진자료, 그림자료,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여 내용들을 참조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19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로 한정하였다. 클레어 맥카텔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맥카텔이 주로 활동했던 1930년대에서부터 1950년대의 사회경향이나 패션동향만을 살펴보는 것은 그녀의 패션이 나올 수 있었던 전반적 맥락을 주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전후 시대 유럽과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패션 역사를 고찰하였다.

첫째, 역사적으로 큰 사회변화를 야기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이슈, 즉 여기서는 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그러한 기점으로 보아 1차 대전이 있었던 1900년대 초기에서 1920년까지, 1920년 이후에서부터 1945년까지,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기성복 산업의 발달 및 패션 산업화 정착기로 나누어 유럽패션과 미국패션의 특징 및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둘째, 클레어 맥카텔의 의상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녀의 의상에 나타난 패션철학과 패션세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현대 패션의 큰 흐름에 있어 클레어 맥카텔이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역사적 배경

### 1. 1기 (오뜨 꾸뛰르 성립기: 1900년-제1차 세계대전)

유럽패션의 역사는 1859년 찰스 프레드릭 워드(Charles Frederic Worth)가 오뜨 꾸뛰르를 창설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20세기 초 폴 뷔와레(Paul Poiret)에 의해 코르셋이 추방되면서 다양한 패션트렌드가 형성되고 오뜨 꾸뛰르와 파리의상 조합 발달로 의상의 상업화가 정착되었다.<sup>2)</sup>

2) 신상옥 (2002). 서양복식사. 수학사. p.268.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해방운동과 탱고음악의 유행과 함께 20세기 복식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여성적이며 섬세하며, 동서양의 이국적풍을 도입시켰던 아르누보가 쇠퇴하면서 시작된 아르데코(Art Déco)나 기능주의 역시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르데코는 공업적 생산방식을 미술과 결합시킴으로써 얻어진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를 추구했다.<sup>3)</sup> 기능주의는 미적인 가치에서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의 대량생산이 요구되면서 새로운 기능주의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의상의 모드(Mode) 또한 새로운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인 의상이 전개되면서 모던 스타일(modern style)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샤넬에 의해 꾸뛰르 의상이 간소화 되고 기능주의 의상으로 변화되면서 의상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기성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게 되었다.

이 시기 유럽의 오프 꾸뛰르 발달과정과는 달리 미국은 의복의 대량생산 시스템과 다양한 유통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미국의 초기 기성복업자들은 대량생산을 꿈꾸었으며 효율적인 생산방식으로 평가받게 된 노동 분업화가 촉진되었다. 재봉틀이 소개되었고 대부분의 의류제조업자들은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위해 큰 규모의 공장을 운영했다.

1890년대에 들어 여성패션의 단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여성복의 대량생산은 성공적이었다. 드레스의 상하가 분리된 스타일은 일러스트레이터 찰스 다이아나 김슨(Charles Dana Gibson)의 셔츠웨이스트와 스커트를 입고 있는 그림에 의해 소개되었고, 그 의상들은 “김슨 웨이스트(Gibson waists)”라고 불리게 되었다. 1892년에서 1912년까지 20년 동안 셔츠웨이스트 의상은 미국여성들의 유니폼이 되었다.<sup>4)</sup>

20년대까지 미국 기성복 생산업체의 80%는 뉴욕 시에 있었으며 그 대부분이 현재의 산업 중심지인 중부 맨하탄으로 이전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7번가 의류센터”를 형성했다. 이렇듯 1차 대전 이전까지 유럽에서 오프 꾸뛰르를 통해 아르누보의 예술성을 중시하는 창의적인 의상 형태가 발달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뉴욕을 중심으로 패션이 산업화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의복의 대량생산체계와 유통시스템 기반이 확립되었다.

## 2. 2기 (기능주의 매스패션 산업 발전: 1920년-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으로 인해 모든 생활양식과 복식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복식계는 침체되었으나 전쟁을 계기로 여성복의 본격적인 현대화가 이루어졌다.<sup>5)</sup> 전쟁의 영향으로 모든 제품의 재료에 있어 경제성이 고려되었으며 의복에서는 특히 스타일의 단순성이

3)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56.

4) Ibid. p.106-107.

5)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2003).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pp.389-390.

두드러졌다. 즉 의복선이 단순해지고 색상도 순수해졌다. 특히 공장이나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의상을 필요로 하였다.<sup>6)</sup> 기능적인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는 1920년경 완전히 정착되어 많은 여성들에게 보급되었다. 이는 샤넬이 주도한 가르송느 룩(Garçonne Look)의 대표적 예였다.

전쟁 후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은 재즈와 스포츠에 열광했다. 사회·문화의 활성화로 인해 20년대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있어 대중문화가 시작되었고 특히, 강대국이 된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나갔다.<sup>7)</sup> 그러나,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재정적 위기가 전 세계를 경제적 불황 속으로 몰고 갔고 모든 나라들은 불경기로 큰 타격을 받았다. 여성의상은 대공황을 계기로 직업여성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비활동적이고 우아한 여성적 느낌이 증시되는 경향이였다.

이와 같이 1929년부터 1930년 사이 보이시 스타일이 사라지면서 허리선은 제 위치로 돌아오고 스커트의 길이가 종아리까지 내려와 1938년경까지 롱스커트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훌쭉하고 긴 롱 앤드 슬림(long & slim)의 여성적인 실루엣이 되었다.

그러나,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물자도 귀하고 가격은 폭등하여 경제는 침체상태에 머무르게 되어 의상은 간소화 되고, 오픈 꾸뛰르는 그 기능을 잃어가면서 사실상 파리의 패션계는 거의 침체상태에 놓이고 미국은 일시적인 유행의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뉴욕에 살롱을 개점하였다.<sup>8)</sup>

반면,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부를 축적하며 진보적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수준도 높아지며, 대량생산은 보통의 소비자들이 구매 가능한 새로운 상품품목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sup>9)</sup> 또한 대형백화점이나 전문상점을 통해 대중적으로 상품에 접근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sup>10)</sup> 1929년에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계기로 세계적 대공황이 일어나고 전후 세계경제에 대 파탄을 몰고 왔으나, 서부에선 서부개척으로 부를 축적하게 된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발전하게 되어 의복산업에 있어서도 창작디자인의 기초는 할리우드의 발달로부터 그 시발점을 찾아볼 수 있다.<sup>11)</sup> 영화산업은 의복을 패션화, 현상화하는 매개체가 되어 할리우드 영화가 패션을 가속화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교통·통신 수단도 물론 발달했지만 영화가 주요 촉진제가 되어 미국의 창조적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게 된다.<sup>12)</sup> 1930

6) Ibid. pp.390-391.

7) 라사라교육개발원(2000). 패션산업정보. 라사라. pp.34-35.

8)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2003). Op. cit. pp.397-398.

9) Ibid. p.113.

10) 라사라교육개발원 (2000). Op. cit. pp.30-31.

11) 라사라교육개발원 (2000). Op. cit. p.33.

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은 극심한 경제적 침체와 혼란 속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패션에 대한 3가지의 각기 다른 분명한 미국의 영향력이 발휘되었다. 첫째, 1930년대 할리우드의 영향, 둘째, 스포츠웨어라 불리는 새로운 타입의 의복, 셋째, 꾸뛰르 기성복(couture-ready-to-wear)이라 불린 미국의 기성복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미국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되는 특별한 디자이너들이 주도한 것이다. 이 디자이너들이 바로 아드리안(Adrian), 클레어 맥카텔, 그리고 노만 노렐(Norman Norell)이다.<sup>13)</sup>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공황기에는 기성복업자의 1/4이 도산했다.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기성복의 사이즈 기준을 확립하고 경영형태를 개선해가면서 기성복산업의 근대화를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매스패션의 기초를 구축한 미국은 제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초강대국으로서 전후 국제패션에 있어 세력을 자랑하게 된 것이다.<sup>14)</sup>

### 3. 3기 (기성복 산업 발달: 1945년-1960년)

1945년 끝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력을 증대시킨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과의 적대적 쟁탈을 배경으로 온갖 무기생산 및 새로운 사회적 분업의 창설과 세분화가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경제발전이나 자본축적의 속도는 가속화되었다. 자본주의체제의 본성인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경향은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산업화를 촉진시켰다.<sup>15)</sup> 특히 교통통신기관의 급속한 발달로 국가 간 거리가 좁아져 유럽 복식이 국제적 의복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전쟁 중 개발된 인조섬유와 천연섬유의 교착이 인기를 끌었다.<sup>16)</sup>

여성 의복은 남성적인 밀리터리룩에서 해방되었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우아한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뉴룩(New Look)을 발표하여 파리의 오프 꾸뛰르를 부활 시켰다.

그러나 영국의 미니스커트 유행과 베이비붐세대의 영향으로 패션의 중심리더는 10대가 이끌어가는 패션문화가 정착하게 되면서 오프 꾸뛰르가 패션을 지배하기에는 역부족 상태가 되어 미국 기성복 산업의 빠른 성장의 영향으로 파리에서도 프레타포르테가 창설된다. 미국 백화점 Lord & Taylor의 사장인 도로시 웨이버(Dorothy Shaver)는 전후 유럽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아메리칸 룩(American Look)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American Designer 발굴 운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발탁된 클레어 맥카텔의 새로운 의상개념은 파리패션에 영향을 주어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기성복 시장에 참여하는 계기가 시작됐다. 이런 미국의 디자인

12) 엔더슨블랙, 매취가랜드 (2003). 세계패션사 2. 자작아카데미. p.124.

13) Carol Mueller (1995). Op. cit. p.114.

14) 라사라교육개발원 (2000). Op. cit. p.25.

15) 양숙향 (2006). 패션20세기. 교문사. pp.87.

16) 신상옥 (2002). Op. cit. pp.299-300.

과 아메리칸 룩의 명성은 1950년까지 놀랄만한 패션 위력을 과시했다. 1960년대에 들어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당선되고,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s)의 출현과 함께 패션은 젊고 자유로운 형태로 바뀌면서 Young Mode, Uni-sex look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오히려 꾸뛰르 디자이너들이 미국적인 기성복 산업에 뛰어드는 역현상을 만들게 되고 세계는 Brand name의 각축전을 만들면서 유럽과 미국의 패션은 새로운 기성복 산업을 향해 질주하면서 패션이 지금과 같은 범 Global산업이 되는 밑거름을 미국의 아메리칸 룩이 만들게 되었다.

### III. 클레어 맥카텔의 작품세계

#### 1. 클레어 맥카텔의 생애와 패션철학

클레어 맥카텔은 아메리칸 룩의 창시자로 유럽 주도적인 패션 스타일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미국패션을 이끈 패션리더로 불리어 지고 있다.

클레어 맥카텔은 1905년 메릴랜드(Maryland)의 프레드릭(Frederick)에서 은행장인 아버지와 남부의 미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2학년을 마칠 무렵,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미래 자신의 직업으로 할 결심을 하게 된다. 파슨스 디자인스쿨(Parsons School of Design)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고, 1926년 파리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디자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나 디자인에 대한 깊은 영감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학업을 완성하기 위해 뉴욕으로 다시 돌아온다. 1928년 그녀는 파슨스스쿨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강의를 했다. 그 후 뉴욕스쿨(New York School)에서 조형과 응용예술(Fine and Applied Arts)을 공부했다.<sup>17)</sup>

1930년 맥카텔은 디자이너 로버트 터크(Robert Turk)의 조수로 일하게 된다. 터크가 타운리 프록스(Twonley Frocks)에 스포츠웨어 상점을 설립하고 1932년 항해사고로 익사할 때 까지 맥카텔은 그곳에서 일을 했으며 이후 터크를 대신하여 컬렉션을 완성하게 된다.<sup>18)</sup> 맥카텔은 7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으며, 1938년 그녀가 처음으로 ‘모나스틱(monastic)’드레스로 상업적 성공을 이룬 것 역시 이 회사에서였다.

1939년 맥카텔은 해티 카네기(Hattie Carnegie)와 함께 일하게 된다. 맥카텔은 해티와는 달리 그리스와 로마 의복의 드레핑에 대한 진가를 높이 평가했지만 결코 유럽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며, 부유층과 특수층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을 위한 의복을 디자인했다.<sup>19)</sup>

17) <http://www.antiquedress.com>

18) <http://www.antiquedress.com>

19) <http://members.aol.com/kreports>

맥카텔을 유명하게 만든 최초의 사건은 제 2차 세계대전이었다. 그녀는 파리 패션의 영향과 독재가 없는 동안 미국이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졌음을 깨달았다. 혁신에 대한 그녀의 취향은 의상이 개인 및 상황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망명을 한 대부분의 유럽 디자이너들은 미국의 소비자를 위한 의상을 효과적으로 연출하지 못하였고 파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클레어 맥카텔은 미국의 패션과 미국여성들을 위한 패션을 창조하는데 전부를 걸고 헌신했다.

맥카텔은 옷감을 선택하고, 바느질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궁리를 하다가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다시 밀어둔다. 마침내 적합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 자료들을 다시 가져와 작은 도안을 그려서 샘플을 만드는 사람에게 도안과 옷감을 준다. 대부분의 다른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그녀는 자신의 컬렉션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과 좋아하는 부분들에 약간씩 변형을 주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sup>20)</sup>

맥카텔은 “정확히 말하면...전형적인 미국 여성과 같다”라고 1941년 보그(Vogue)지에 실린 바 있으며 미국패션산업에 있어 그녀의 역할이 너무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 1955년 맥카텔은 패션 디자이너로서는 처음으로 타임지(TIME)의 표지모델로 선정되었다<그림 1>.

맥카텔은 1943년과 1956년에 걸쳐 두 차례의 코티(COTY)상을 받기도 했다.<sup>21)</sup> 195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날 당시에도 맥카텔은 여전히 타운리에 있었으며, 미국의 이미지를 미국의 패션 미학으로 변형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경력은 짧게 끝나기는 했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대단하고도 지속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꾸미고 멋을 내어 단명 하는 하루살이 같은 모든 패션의



<그림 1> Time지 표지모델로 선정된 맥카텔. 1955  
<http://www.mdarchives.state.md.us>



<그림 2> 클레어맥카텔의 작품 일러스트레이션  
<http://www.cottoninc.com>



<그림 3> 모나스틱 드레스, 1946  
Women of Fashion p.106

20) (주)라사라패션정보 (2000). Op. cit. p.124.

21) <http://www.cottoninc.com/Smarticles>



해독제 역할을 했다. 현재 그녀의 작업 밑그림들이 켈런 공문서센터(Kellen Archives Center)에 있는 124개의 스케치북에 담겨져 있다. <그림 2>

클레어 맥카텔은 모델들이 그녀의 의상을 입을 때 단단하게 고정되는 속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였다. 맥카텔은 조절 가능한 바디스(bodice)나 네크라인을 사용하고 풍성하게 주름이 잡힌 그녀의 모나스틱 의상은 벨트로 사이즈를 조절하고 벨트 없이 입을 수도 있다.<그림 3> 즉 착용자가 자유롭게 디자인을 변신할 수 있으며 기성복 시스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팔기 어려운 상업성까지도 지녔다. 맥카텔은 이런 자신의 혁신을 그다지 과장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혁신이란 단지 좀 더 적절하고 편하게 옷을 입는 방법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곧 이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맥카텔은 자기가 사용하는 직물의 특성에 집중을 했고, 여성 신체의 3차원성에 대해 특히 감각적이었으며 의복의 재단선을 단순화하였다. 고급직물이나 수작업스티치 등도 사용했지만 일반 면 칼리코(cotton calico)로 여성들이 어디에서나 입을 수 있는 스마트한 의상으로 변형시켰다.<그림 4>

맥카텔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의복은 유용성이 있어야 하며 편해야 한다.” “내가 항상 궁금했던 점은 왜 여성들의 의상은 우아해야만 하고, 왜 여성들의 의상은 여성스러운 만큼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있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저서인 “What Shall I Wear?”에서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의상에 표현한다 즉, 그것은 미국처럼 보이고 느끼는 것이다. 자유(freedom), 민주주의(democracy), 편안함(casualness), 건강함(good health) 라고 함축하여 자신의 의상에 대한 철학을 표현하였다.<sup>22)</sup>

## 2. 클레어 맥카텔의 패션특성

### 1) 독창성

그녀의 독창성은 30년대 파리 오프 위뜨르의 통념에서 벗어나 미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의상에 투영시켰던 창의성에서 볼 수 있다. 1938년 그녀가 처음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모나스틱’처럼 입는 사람이 새쉬(sash)나 벨트로 자연스러운 허리선을 만들어주는 로브(robe)형 의상이나 구조성도 허리선도 없는 랩어라운드 스타일의 팝오버(popover)드레스는 착용자가 임의로 디자인을 재구성 할 수 있는 즉 하나의 의상구조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구조적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1벌의 개념이 아닌 여러벌의 의상이 Mix-&- Match되어 착용자에 의해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는 착용자 중심의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 그 것이다. 입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조화시켜 입는 세퍼레이트(separates) 코디 개념, 이런 캐주얼 의류에 매치되는 일상적 서

22) Helena de Paola, Marketing Today's Fashion, Princeton-Hall, p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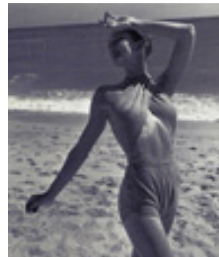
츠용 소재로 제작한 이브닝드레스, 장갑이나 신발, 모자, 악세서리 등을 선글래스와 같은 하나의 패션 아이템과 전체적으로 조화시킨 토탈 룩 개념은 기존의 유럽형 꾸뛰르 의상과 차별화는 그녀만의 미국적 독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블스티칭 사용, 청동제 소품 사용, 마름모형 수영복, 발레슈즈의 일상화 응용, 울 피케에서 체크무늬 면포까지 다양한 의복소재를 사용, 오렌지, 레드, 보라 등 대담하고 화려한 색상 사용, 의복에서의 과잉장식물 제거, 드레이프진 수영복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즉, 의복 소재의 제한성이나 영역의 한계를 두지 않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기능적인 American dream의 의상을 구현하였다. <그림 5, 6>



<그림 4> Cartridge-pleated Shirdress. 1950, www.metmuseum.org



<그림 5> 플레이드 리넨 셔츠드레스. 1950



<그림 6> Jersey balter-top bathing suit Women of Fashion p.105

## 2) 기능성

위에서 언급된 그녀의 독창성은 미국의 기능주의 정신을 의상에 부여한 것으로 ‘모나스틱’ 드레스도 다양한 체형에 맞게 조절되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은 기능주의에서 출발했다. 이렇듯 신체를 압박하지 않는 박스형태의 드레스, 풍성한 턴들 스커트 등의 형태 구조뿐만 아니라 소재의 기능성을 들 수 있다. 데님, 코듀로이, 울 저지, 나일론 등 다양한 일상적 소재 사용하여 여성적인 우아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편안함, 실용성, 내구성을 강조했다. 디테일에서도 필요에 따라 조절 가능한 바디스(bodice)나 네크라인 사용, 끈 타이나 벨트의 다양한 응용, 착용시 편안함과 관리의 유용성이 강조된 와이셔츠 소재로 된 이브닝드레스 <그림 12>, 단순한 흑크 여밈 드레스<그림 7>, 다양한 매치와 응용이 가능한 의복의 단품아이템들, 둥근 어깨선, 다탈트 사용, 안감 사용을 최대한 자제, 손이 닿기 편한 위치에 주머니 부착, 단순하면서도 험렁하게 맞추어 입는 스타일에 조절 가능한 벨트 사용 등 그녀가 만든 의상들은 여성들에게 편안함과 실용성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부여했다.<그림 8>

## 3) 심미성

독창적 아이디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부터 발현되는 심미성이다. 그녀의 작품이 단지

편안함이나 기능성만 강조되는 의상이었다면 대중에 어필하여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모나스틱 드레스의 심플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드레이프성이나 재단선의 단순화, 수작업스티치를 이용, 바이어스 재단, 끈, 벨트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의복 스타일 <그림 9>, <그림 10> 등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연주의적 심미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대 패션이 추구했던 미니멀리즘(minimalism)적 요소들이 당시의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패션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심미적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11> 파리의 스킨아빠렐리에 의해 지배되던 초현실주의적 의상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기능주의적인 모더니즘을 의상에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60년대의 팝아트적 요소를 지닌 영 캐주얼 의상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개척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7> hook dress, 1943.  
Fashion Designers p.66



<그림 8>  
Fashion Designers p.70



<그림 9> playbathing suit. 1943.  
www.antiquedress.com



<그림 10> monk dress  
Fashion Designers p.67



<그림11> day dress  
Icon of Fashion p.59



<그림 12> evening dress  
Fashion Designers p.71

#### 4) 상업성

클레어 맥카텔의 가장 큰 복식사적 기여는 의복이 산업화되고 분업화되어 용이하게 제작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에 맞는 의상의 구조적 특징과 소재사용이다. 즉, 기존의 여성의상의 의복 재단선을 단순화하고 일상적이고 봉제가 용이한 의복 소재로 전환하여 여성복의 산업화는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정해진 구조성 없이 다양하게 변형시켜 착용할 수 있게 한 랩어라운드 드레스, 다양한 의복 아이템과 패션 소품들의 전체적인 조화를 꾀한 토탈패션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킷, 셔츠, 스커트, 바지, 액세서리 등이 Mix & Match되는 현대 기성복 시스

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는 장소나 용도에 따라 응용 가능한 피스(piece)별 의복 아이템 개발 등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어울리는 다양한 품목의 재구입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은 패션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브랜드 로열티를 확보하게 되어, 패션산업은 세계적 생산과 판매망을 지닌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성장이 가능케 하였다.

맥카텔은 무도회의 가운데형 의상은 거의 만들지 않았으며, 그녀가 만든 이브닝 의상은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한 단순한 드레스나 호스티스 가운(hostess gown; 집 안에서 손님이 있을 때 입는 긴 실내복)등이 잘 알려진 것들이다. <그림 12>

클레어 맥카텔 작품의 주요 아이템, 사용 소재 및 실루엣, 디자인, 색상 등을 중심으로 클레어 맥카텔의 패션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클레어 맥카텔의 패션특성

요 소	내 용
의복 아이템	데님 슈트, 스커트, 점프슈트, 반바지, 블라우스, 바지, 후드달린 상의, 스웨터, 원피스드레스, 수영복, 발레신발, 핸드백, 장갑, 모자, 신발, 선글래스, 악세서리
실루엣 스타일	박스형스타일, 정형화되지 않는 자유로운 실루엣, A, O형 실루엣 어깨 패드나 무거운 구조 등 엄격히 규제된 스타일 보다는 wrap-and tie 스타일, 풍성하고 주름 잡힌 스타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외형선
재단	허리선이나 요크선 등 없이 재단, 특히 바이어스 컷 재단 선호, 주름활용 심플한 재단선, 둥근 어깨선
소재	denim, sailcloth, ballooncloth, corduroy, wool jersey, lingerie nylon, wool fleece, seersucker, calico, mattress ticking, cotton velveteen, checked cotton, linen 발랄한 프린트, 단순격자무늬, 견고한 직물
색상	노란색 계열, 빨강, 브라운, 빨강이 섞인 자주, 오렌지, 핑크, 보라 등 화려한 원색을 대담히 사용, 청록색과 조화된 올리브 그린, 검정색, 흰색
디테일 및 특징	커다란 포켓, 청동단추, 지퍼, 훅크 사용,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새쉬(sash), 조절 가능한 바디스(bodice)와 네크라인, 끈 타이활용, 일상복과 이브닝의상의 개념 믹스, 다루기 쉽고 입기 편한 단순한 디자인, no-frill, 패딩 삭제

#### IV. 클레어 맥카텔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클레어 맥카텔은 1940년대 ‘아메리칸 룩’을 확립한 디자이너다.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그녀의 의복들은 항상 편안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심플하면서도 돋보이며 다루기 쉽고 입기 편한 옷들을 소개했다.

미국의 여성으로부터 영감을 이끌어낸 클레어 맥카텔은 여성의 독립과 자립을 촉구하는 의상을 디자인했다. 편안함의 추구에 있어 맥카텔은 남성복의 기능주의를 여성복의 디자인에

옮겨 놓았다.

맥카텔의 스타일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했다. 맥카텔은 직관력 있는 구성 감각을 가지고 모든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상을 디자인 했다. 엄밀할 정도로 실용적인 디자인 원리에 기초한 맥카텔의 프릴 없는 디자인(no-frills)이나 모든 과잉장식물의 제거는 현대 미니멀 디자인 원리에 기초가 되었다. 맥카텔은 패션에 있어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자기만의 클래식 디자인을 추구하고 발전시키기도 했다.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창의적인 디자인들은 현대 패션산업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클레어 맥카텔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스포츠의류의 기능주의 개념을 일상복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그때까지의 여성다움을 강조하던 여성상의, 직업전선에 나와야 하는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기능성 의상을 필요와 함께 맥카텔의 기능주의 의상은 돋보였다.

둘째, 단품의류 아이템 개발로 현대 패션의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대량생산이 용이하도록 의류를 단품화하여 믹스 앤 매치(mix & match)시켰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모여 하나의 라인(line)을 형성하는 현대패션산업화시스템에 맞는 의상을 개발하였다.

셋째, 유럽과는 차별화된 미국인의 정신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서구적 의상의 모델을 제시하여 새롭게 서구패션을 선도해갔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큰 대륙에 펼쳐있는 주거환경으로 많은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주말에 쇼핑몰(shopping mall)에서 함께 모든 것을 구입한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유럽의 꾸뛰르의상은 맞지 않았으며 그들만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중시했고 실용주의를 의상에 도입했다. 2차 대전 후 시대가 바뀌면서 예술성을 제일 가치로 여기던 오프 꾸뛰르의 유럽디자인을 퇴색시키고 이러한 미국의 패션 트렌드와 산업은 프랑스 파리에 프레타포르테(Pret-a-porter)가 창설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디자이너들은 세컨트 브랜드 개발과 함께 미국식 기성복제작을 위한 라이선스 전쟁에 뛰어들었고 패션산업이 다국적 국제 산업의 중심에 서게하는 역할을 하였다.

## V. 결 론

본 연구는 193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미국의 기성복 산업을 정착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클레어 맥카텔의 생애와 그녀의 작품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녀의 패션철학과 현대 패션

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미국과 유럽의 시대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20세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성복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는 클레어 맥카텔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현대패션에서 클레어 맥카텔의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다음의 몇 가지로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남녀 평등사상의 대두와 함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또 그럼으로써 그들은 의복에 있어 편안함과 기능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는 맥카텔의 아메리칸 드림에서 시작된 기능주의 스포츠의류 개념을 일상복으로 전환시켰다.

둘째, 1940년대부터는 현재 우리가 ‘토탈 룩(total look)’이라고 부르는 개념, 즉 의복과 모자, 가방, 구두 등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코디네이트 개념의 현대 기성복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의상을 제안했다. 소량의 의복아이템을 가지고도 믹스 앤 매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변화와 실용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녀의 패션철학으로부터 단품의류 아이템을 개발하여 현대 패션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곧 클레어 맥카텔의 마케팅 혁신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 의류상점들은 단품별 재고를 염려하였기에 맥카텔의 코디네이트 컨셉을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그것은 스포츠웨어시장의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맥카텔의 파트너였던 아돌프 클라인(Adolf Klein)을 자극하여 ‘디자이너 라이선싱(designer licensing)’을 촉발함으로써 액세서리 제조업자들이 맥카텔 상표를 붙여 액세서리를 만들고 판매하도록 했다.

셋째, 클레어 맥카텔은 가장 미국적인 미국인의 모습을 추구했다. 그러므로 그녀의 의상은 전체적으로 미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그녀에게 가장 자신있고 좋아하는 미국처럼 보이고 미국처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패션철학으로부터 유럽과는 차별화된 미국인의 정신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서구적 의상의 모델을 제시하여 새롭게 서구패션을 선도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클레어 맥카텔은 미국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아메리칸 룩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디자이너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녀의 활동기인 1930년에서 1958년까지 그녀가 소개한 디자인 아이디어나 컨셉들이 곧 패션이 되고 마케팅의 전통이 되어왔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클레어 맥카텔은 확고한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으로 미국 스포츠웨어 디자인을 세계화시키고 또 지금까지도 자신의 작품에 영원성을 부여한 디자이너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이너의 패션철학을 이해하고 그 작품을 분석하기에는 국내의 한정된 자료에 의존하였기에 미국 내 보다 다양한 실증적 자료들을 통해 그녀의 의상들을 고찰하고 검증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지식과 더욱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한 좀더 체계적인 연구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유럽디자인에 편향된 국내 패

션 디자인 연구에 비추어 우리의 것을 세계화하고자 하는 한국 패션 디자인연구에 새로운 방향성과 사고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라사라편집부 (1991). 20세기 모드의 역사. 라사라.
- 라사라교육개발원 (2000). 패션산업정보. 라사라.
- 라사라패션정보기획편집 (2003). 세계의 패션디자이너(2). 라사라.
- 백영자, 유효순 (2003).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 신상옥 (2002). 서양복식사. 수학사.
- 안병기 (2003). 패션전문용어의 이해. 경춘사.
-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2003).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 이호정 (1997). 패션유통산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메리볼프 (1995). 패션, 패션문화사.
- Carol Mueller (1995)
- 앤더슨블랙, 매취가랜드 (2003). 세계패션사 2, 자작아카데미.
- Valerie Steele (1991). Women of Fashion, Rizzorli.
- Grada Buxbaum (1999). Fashion Designers, Prestel.
- Pamela Golbin (2001). Icon of Fashion, Watson Guptill.
- Helena de Paola, Marketing Today's Fashion, Princeton-Hall
- 강진석 (1990). 샤넬복식에 나타난 “기능주의”와 “클레식스타일”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성 (2004). 샤넬의 패션소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성, 배수정 (2003).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철학을 통해 나타난 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服飾. 53.
- 양유미 (2002). 샤넬의 작품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성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숙 (2000). Karl Lagerfeld 패션에 나타난 미적표현특성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관이 (2000). 샤넬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영 (1999). 한국의 패션 산업과 유통산업: 2인 3각의 새로운 출발. 한국패션유통 공동세미나 발표논문집.

- 이송림 (2000). 샤넬이미지를 통한 패션코디네이션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경 (2001). 조르지오 아르마니 패션에 관한 연구: 디자인특성과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호정, 하지수 (2002). 우먼파워로 나타나는 최근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 -80년대 여성 여피 패션 스타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服飾. 55(2).
- 하지수 (2002). 미국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주의. 한국의류학회지. Vol. 26.
- 하지수 (2002).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패션의 미적가치. 服飾. 52(7).
- 하지수, 김민자 (2002).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미적가치와 조형성. 服飾. 52.
- 하지수 (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服飾. 22.
- 허정아 (1993).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디자인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명숙, 이선재 (1997). 한국패션산업: 그 흐름과 전망. 한국패션유통 공동세미나발표논문집.
- <http://www.cottoninc.com/Ismarticles>
- <http://www.antiquedress.com>
- <http://www.mdarchives.state.md.us>
- <http://www.cottoninc.com>
- [www.metmuseum.org](http://www.metmuseum.org)